
홍윤식


이현세


김병주


전원주

올해 불자대상 홍윤식 교수 등 4人

올해 조계종 불자대상에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4인이 선정됐다.

조계종 불자대상 선정위원회(위원장 원행)는 4월 30일 불기2563년도 불자대상 수상자 선정 회의를 개최, 홍윤식(동국대 명예교수) · 이현세(세종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 · 김병주(前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 전원주(방송인) 불자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홍윤식 불자는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국불교문화가 시대에 맞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1970년 '불교미술공모전' 창설을 주도해 현재의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으로 확대되는 데 공헌했다. 이현세 불자는 국내 만화계를 대표하는 대중문화 선구자로서 지난해 독립운동가 초월 스님의 일대기를 다룬 웹툰 '초월'을 연재, 불교계의 독립운동을 알리는 데 기여했다.

김병주 불자는 1984년 임관 이후 남다른 신행활동과 포교활동을 펼쳤다. 국군불교 총신도회장으로서 군불교 위상을 높이고, 민 · 군 불교 유대강화에 공로를 세웠다.

전원주 불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불자 방송인으로서 2012년부터 지구촌공생회 홍보대사를 역임하는 등 각종 포교활동과 불사에 매진했다. 전국 불교행사에 참석해 공연 및 강연을 하고, 최근 백만원력결집 선포식에서 참석 대중을 대표해 발원문을 낭독하는 등 불자들의 신심 고취에 기여했다.

불자대상 시상식은 오는 5월 12일 오전 10시 조계사에서 봉행되는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진행된다. 시상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맡는다.

윤호섭 기자


백만원력 결집불사 추진위원들이 위촉식에서 보살행을 다짐하며 발원문을 낭독하는 모습.

"풀뿌리 원력 모아 한국불교 중흥"

조계종 백만원력 결집불사 추진위원 80명 위촉

"한 사람의 원력이 100명을 움직이고, 1만의 원력이 100만의 강물이 되어 한국불교의 밝은 내일을 열 때까지 우리의 정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조계종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백만원력 결집불사를 도울 80명의 추진위원이 위촉됐다. 백년대계본부 백만원력결집위원회(위원장 금곡)는 5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을 비롯한 80명의 추진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추진위원으로는 중앙신도회, 직할교구신도회, 포교사단, 포교 · 신도단체 임원들이 포함됐다.

이날 위원장 금곡 스님은 "부처님께서는 정각을 이루시고, 맨발로 녹야원까지 이동해 5비구에게 법을 전했다. 오롯이 혼자의 힘이었다"며 "부처님 같은 원력만 있다면 여러분 한 사람이 1천명, 1만 명을 모을 수 있다. 먼 곳이 아닌 가까운 사람부터 함께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진위원들은 "하루 100원 이상 보시하고 보살행을 실천하며 나의 가족과 이웃, 우리 절의 신도님과 단체 회원들이 불사에 수희 동참하도록 널리 알리고 조직하겠다"고 발원했다. 윤호섭 기자

불자들의 꾸짖음 "MBC 참회하라"

조계사대책위 5월 2일 MBC본사서 규탄법회

노덕현 · 윤호섭 기자

왜곡보도로 조계사와 한국불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판받는 MBC를 향한 불자들의 목소리는 준엄했다. 조계사 불자들은 삭발과 청소 퍼포먼스로 MBC의 보도행태를 꾸짖고 참회를 촉구했다.

'불교폄훼 MBC허위보도 근절을 위한 조계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5월 2일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MBC본사 앞에서 '불교탄압 MBC 규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대책위 위원장 원명 스님(조계사 부주지)과 부위원장 남전 스님 등 스님들을 위시한 조계사 신도대중 1000여 명은 'MBC는 참회하라' '사장 최승호는 물러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MBC를 향해 구호를 외쳤다.

규탄법회에서 불자들은 △MBC 개혁위한 국민청원 동참 △MBC 사과와 불교탄압 중단 △최승호 사장 즉각 사퇴 참회 △MBC 보도국장 해임 및 담당기자 징계 등 4개항을 결의하고, 신도대중이 적극적으로 국민청원 등을 통해 문제제기 해나간다는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이세용 조계사 종무실장과 최종현 기획차장이 삭발을 단행해 결연한 의지를 보였으며, 스님들은 왜곡, 편파 보도 행태를 청산하자는 빗자루 퍼포먼스를 펼쳤다.

대책위 위원장 원명 스님은 "최승호 사장은 PD시절 '공영방송이 복원되면 조계종 적폐 관련 특집방송을 제작해 방송하겠다'고 발언한 인물"이라며 "공영방송이란 거대한 권력으로 불교와 조계사에 횡포를 자행했다. MBC와 MBC사장 최승호야말로 적폐의 대상이고 개혁해야 할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문주 대책위 부위원장(신도회 사무총장)은 "MBC는 과연 공정한 방송인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올해도 어김없이 불교 헐뜯기 방송이 등장했다"며 "MBC의 정정보도와 사과방송까지 우리의 항의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규탄법회는 1000여 대중의 다라니정근과 '석가모니불' 정근 행진으로 마무리됐다.

불자 1000여 명 법회 참여
"불교탄압 중단하라" 구호
사장 사퇴 · 기자 징계 요구
삭발, 빗자루 퍼포먼스도
국민청원 등 지속 항의예정

대책위 측은 공식사과와 정정보도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규탄법회와 항의전화 등을 지속 전개하는 한편 법적 책임도 묻겠다는 방침이다.


조계사 스님들을 비롯한 신도대중으로 구성된 '불교폄훼 MBC허위보도 근절을 위한 조계사 대책위원회'는 5월 2일 서울 상암동 MBC본사 앞에서 규탄법회를 열고 MBC 참회와 사장 사퇴 등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대책위는 4월 30일 중앙지방검찰청에 MBC 책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책위원회는 "4월 8일 MBC의 취재협조 요청 공문에 본 사찰은 회신 공문을 직접 전달하며 소명을 다했고,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는 시기이므로 단순 의혹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4월 22일 MBC뉴스데스크에서 '조계사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이라는 선정적인 자막과 함께 '지진설비 누락' '대형금고 설치', B건설 대표의 인터뷰 왜곡 등 악의적 편집으로 조계사가 비리의 온상인 양 짜맞추기 방송을 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한편, 조계종은 조계종은 4월 29일 '10.27법난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한 MBC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MBC는 국가법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기념관 건립사업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세력과 결부시킴은 물론 특정종교에 대한 특혜인양 의도적인 왜곡과 편파보도로 국민들을 현혹했다"고 지적했다.

조계종은 △2015년 8월 정부 사업승인 이전 2011년부터 서울시와 '견지동 역사문화관광자원 조성사업'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온 점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기념관 건립사업이 가능하도록 추진한 점 △토지매입 어려움으로 건립 부지를 조계사 일원에서 봉은사로 변경해 진행 중인 점 △건립 부지는 김종 前차관 임명 이전 결정된 점 등을 이유로 MBC의 보도 내용이 잘못됐음을 주장하면서 MBC가 사과하지 않을 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구례 천은사 입장료 32년만에 폐지

천은사 · 전남도 등 8개 기관 4월 29일 업무협약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구례 천은사 문화재입장료가 32년만에 폐지됐다.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덕문)와 천은사(주지 종효)는 4월 29일 천은사 경내에서 환경부(장관 조명래)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 ·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 · 구례군(군수 김순호) 등 8개 기관과 함께 '천은사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폐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날부터 입장료를 폐지키로 합의했다.

천은사 문화재입장료 문제는 사찰 입장료 갈등의 대표 사례로 여겨져 왔다. 애초 1960년대 후반 당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리산국립공원을 지정하며 천은사 소유 토지를 포함시켰고, 1987년 전두환 정권은 관광특수를 위해 지리산 관광도로(861번 지방도)를 개통했다. 이후 정부는 이곳에 매표소를 설치해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구역입장료를 함께 징수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2007년 국립공원입장료를 폐지하면서 사찰의 문화재구역 입장료는 '뜨거운 감자'가 됐다. 천은사 측은 지방도의 상당수가 사찰 경내와 소유 토지를 통과하고, 산내암자와 선원 등을 잇는 문화재구역이어서 계속 입장료를 받아왔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들은 천은사 문화재입장료에 대해 법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장기간의 논란 끝에 천은사와 지역 본사인 화엄사, 전라남도, 구례군 등 관계기관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만나며 해결 방법을 모색해왔다. 결국 천은사와 관계기관들은 2019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입장료를 폐지키로 하고 산문을 국민들에게 개방키로 협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천은사 주지 종효 스님은 "천은사는 지난 30여 년간 사찰과 협의 없이 만들어진 도로로 수행환경이 훼손돼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현 정부의 진지한 의견 개진으로 지리산권역의 전통문화와 관광 활성화, 자연환경 개선에 대한 국민과 지역 주민의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입장료문제를 해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리산 관광 활성화 협의
입장료 폐지 · 부지 매입 등
세부 사항들 이행에 노력
"부처님오신날 맞아 협약
천은사 자연 국민께 보시"

이어 "화엄사와 천은사는 입장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천은사 천년의 문화와 자연환경을 국민들에게 보시하려 한다"면서 "천은사 입장료 폐지를 통해 지리산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자비심을 접하고 지혜에 머무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구례 천은사는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폐지하며 관계 기관들은 천은사 운영 기반 조성사업 지원 등 '지리산 권역 관광 활성화'에 노력키로 했다. 협약에는 △천은사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폐지 △탐방로 및 무장애 탐방로 사업 지원 △천은사 운영 기반 조성사업 지원 △지방도 861호선(천은사 구간) 도로부지 매입 △문화재 보수 및 관광자원화 지원 △천은사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지원 등이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천은사 운영 기반 마련 등 실천적 과제들이 남아있지만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지역과 국민들 위해 천은사와 함께 협의에 동참했다"면서 "이번 협약이 지역과 사찰이 상생협력하며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생활 불교 · 실천 불교 · 효행 불교

문화체육관광부 법인 인가 종단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이사장·총무원장 석도선 고 문 석암도 승정원장 석벽봉

승 정 석화담 승 정 석혜암 원로고문 석법령
원로위원 석일우, 석청산, 석우암, 석도명, 석정호, 석법산, 석법광, 석자광

총무원장	석도선	교육원장	석남산	기획원장	석담허	어산장	석도암
법계고시원장	석일두	호법원장	석청강	의전원장	석법도	비구니회장	석경호
총무부원장	석대공	총무부장	석도흥	감찰부장	석성보	조사부장	석성도
수행부장	석보각	사회부장	석자광	사서부장	석성우	조직부장	석성각
종무부장	석법민	문화부장	석성원	포교부장	석보현	연수부장	석원희
총무국장	석성덕	지원국장	석해인	봉사국장	석성호	포교국장	석혜진
포교국장	석법정	포교국장	석성원	의전국장	석균중	수행국장	석성탁
종무국장	석성안	문화국장	석원종	의식국장	석성혜		
비구니부회장	석효성	비구니부장	석지현	비구니국장	석충효		

제주중앙종무원장	석의공	예천중앙종무원장	석명허	강릉중앙종무원장	석성만	성주중앙종무원장	석홍재
칠곡중앙종무원장	석혜천	부천중앙종무원장	석원해	충북중앙종무원장	석선학	포항중앙종무원장	석체법
영주중앙종무원장	석문교	속초중앙종무원장	석태성	영천중앙종무원장	석도명	천안중앙종무원장	석함월
시흥중앙종무원장	석지일	경남중앙종무원장	석일지	태백중앙종무원장	석일현	김해중앙종무원장	석천각
문경중앙종무원장	석정현	창원중앙종무원장	석청암	대구중앙종무원장	석성담	제천중앙종무원장	석진공

종단법인 임원
이사장 도선
감 사 성덕 성민 선화
이 사 남산 체법 일두 성만 성우 학산 성원 일현 도명 청암 혜천 의공 성안 법광

종단법률 자문위원
변호사 김진우(明眞) 법무사 이익렬(雲虛) 세무사 이수열

사단법인 생활불교조계종

이사장 · 총무원장 석도선

종립미래로봉사회

회 장	학 산 (이종길)
부회장	진불심 (이순임)
총 무	대각심 (김경숙)
임 원	혜명심 (박현숙)
임 원	보덕심 (박경남)

종립종합예술원

원 장	묘 각 (이재인)
부원장	혜 담 (이정민)
국 장	불심화 (정형숙)
무 용	무애심 (박순애)
연 출	원각심 (도지연)

법사승 임원

경남원장	도혜	충북부장	상학	청주부장	혜원
울산원장	법광	부산부장	혜성	전남부장	혜명
경북원장	성인	경기부장	자운		
법사원장	목암	구미부장	혜진		
홍보부장	원명	대구부장	혜련		
경남국장	성광	포교국장	청운	삼척국장	정허
사업국장	소현	통영국장	덕인	영천국장	원명
포교국장	덕운	포교국장	혜림	통역국장	정연
종무국장	도연	봉화국장	혜정	포교국장	혜경
서울국장	명덕	화순국장	보정		

종도 입종을 환영합니다

총본산 경북 영양군 수비면 계2리 58-1번지, Tel 054)682-5808 / Fax 054)682-9848 총무원 서울시 은평구 증산서길 91 2층, Tel 02)303-5612